

민족국가와 언어의 정치: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조 홍 식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이 연구의 출발점은 민족-국가-언어의 관계에서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패러독스이다. 독일과 같이 혈통, 전통, 관습, 언어 등을 강조하는 종족문화적 민족의 정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고 왜 가장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민족 구성을 주장하는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단일 언어 정책과 동화 정책을 펴는가 패러독스의 핵심 질문이다. 이 논문은 프랑스 민족의 근대적 형성과 이를 동반하는 언어의 정치를 '전통의 발명'과 '근대 국민의 형성', 그리고 '언어를 통한 지배'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프랑스의 경우 독일처럼 문화적 민족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종족·다문화적 상황에서, 먼저 형성된 단일 국가에게 있어 동질적인 민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언어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와 동시에 장기 역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 언어의 정치가 밀접한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제국의 붕괴에 따른 정치력의 상실을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보상하려는 프랑스어권 정책이 등장하는 한편,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화와 영어가 강한 위상을 차지하는 유럽화로부터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과잉 반응의 정책을 나타낸다. 이는 이민과 지방언어의 부활 운동과 같은 내부적 반발에 직면하면서 더욱 국수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민족, 민족국가, 민족 정체성, 언어, 프랑스, 프랑스어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생산적인 논평을 통해 이 논문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 서론: 민족, 국가, 그리고 언어

“모든 민족은 고유의 언어를 갖는다”는 문화적 명제는 “모든 민족은 고유의 국가를 형성한다”는 정치적 명제와 함께 민족국가로 구성된 현대 세계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런 현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¹ 하지만 실존하는 국가의 수가 잠재적인 민족의 수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작은 현실이 보여주듯이, 국가와 민족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보다는 무척 인위적이고 복합적이다(Gellner, 1983: 3-5). 마찬가지로 민족과 언어의 상관관계 역시 대단히 복합적인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 국가가 보편화된 21세기의 세계에서 언어의 수는 위에서 언급한 잠재적 민족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 만여 개에 달한다. 다수의 언어 중에서 일부만이 공식적이고 정당한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와 언어의 삼각관계는 결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하겠다.²

이 연구의 출발점은 프랑스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패러독스이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근대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을 발명하였고 실천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민족(nation)이라는 개념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기존의 군주의 주권을 대신하는 인민 주권의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다른 한편 민족주의의 탄생 역시 1792년 프랑스와 프러시아가 맞부딪친 발미(Valmy)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의 “민족 만세!”라는 구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상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Brubaker, 1992: 8).³ 18세기 후반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였고, 영국에서는 시민을

-
1.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은 nation의 번역어로서 문화 중심적으로 규정된 종족 ethnies과는 구별되는 정치적 개념임을 밝혀둔다.
 2. 19세기 유럽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국어의 역할에 관해서는 앤더슨의 고전 ‘상상의 공동체’ 제5장을 참고할 것(Anderson, 1991: 67-82).
 3. 발미 전투는 군사적으로 그다지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지만, 전투를 참관하였던 괴테가 “이 시간과 장소는 세계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고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대표하는 의회제도가 발전하면서 인민 주권의 한 양식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 민족과 민족주의가 프랑스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하게 시작하여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민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논의할 때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상반된 모델로 대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프랑스가 시민들의 주관적인 의지와 선택에 기초한 정치적인 민족 형성의 모델이라면, 독일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규정된 공동체적인 민족 구성의 모델이다(조홍식, 2005). 프랑스의 민족은 르낭이 표현하였듯이 “매일 매일의 국민투표”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결과라면, 독일의 민족이란 혈통과 관습, 문화와 언어로 규정된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집단이라고 하겠다. 이런 대립적 모델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보수 논객 뤼스텔 드 꼴랑쥬(Fustel de Coulanges)는 1870년 독일의 역사학자 뎀센(Mommsen)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자스는 인종과 언어에 있어 독일적일 수 있지만 민족성이나 조국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프랑스적이다”(Basdevant, 1933: 90)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민족의 정치적 구성을 강조하는 프랑스가 종족·문화적 민족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독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어 정책을 펼쳐 왔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사례의 패러독스란 민족의 구성 요소로서 언어와 같은 문화적 정의를 경시하는 보편주의적 민족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제일 강력한 제약과 속박을 가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는 점이다. 언어 정책이란 국가가 정당한 언어와 언어의 사용을 규정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강요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를 뜻한다.⁴ 프랑스는 이미 16세기부터 강력한 언어 정책을 펼쳐 왔으며,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전국에 프랑스어를 강제하는 정책을 사용하였고, 최근 들어서도 외국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헌법에 프랑스어를 국어로 명시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송기형, 2000; 원윤수 외, 2000; 김진수, 2007).

4. 홉스봄은 모든 국어(national language)는 거의 항상 반 인위적인 구성체이며 때로는 근대 히브리어처럼 거의 완전히 발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obsbawm, 1990: 54).

인종, 혈통, 문화, 언어와 같은 요소들을 부정하고 가장 정치적인 민족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왜 가장 강력한 언어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표면적 패러독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심층적 논리는 무엇인가? 민족국가와 민족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언어와 언어 정책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며 프랑스의 사례 연구를 통해 다른 민족국가와 언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정치를 살펴본다. 첫째는 ‘전통의 발명’이라는 차원이다. 홉스봄과 레인저는 민족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장기적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지적하였다(Hobsbawm and Ranger, 1983). 사람들이 오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실제로 아주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신화들이 많다는 점이다. 프랑스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의 전통과 영예가 만들어지고 다듬어 지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신화와 현실을 구분하여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는 ‘근대 국민의 형성’이라는 차원이다. 전통과 신화가 발명되어 만들어 지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면, 이를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강요하는 과정은 또 다른 하나의 단계이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 제3공화국 시기에 농민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와 군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Weber, 1976). 프랑스어는 초등학교와 군대에서 주입되고 확산된 가장 대표적인 소통의 도구이자 프랑스 민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또 내부적으로 프랑스 국민 만들기가 진행됨과 동시에 제국주의 팽창으로 얻은 해외 영토에서도 프랑스어를 통한 지배가 행해졌다. 언어를 통한 국가와 국민의 상호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언어를 통한 지배’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이미 사회과학의 다양한 연구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배 관계를 매개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밝혔다(Bourdieu, 2002: 121-137). 부르디외는 언어 시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언어와 그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그리고 언어를 동반하는 표정과 제스처 등이 가치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민족 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권력 또는 지배 관계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동시에 국제적 무대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위상과 상호 관계 역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논문은 프랑스 민족의 근대적 형성과 이를 동반하는 언어의 정치를 이와 같은 ‘전통의 발명’과 ‘근대 국민의 형성’, 그리고 ‘언어를 통한 지배’라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프랑스의 경우 독일처럼 문화적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다종족·다문화적 상황에서, 먼저 형성된 단일 국가에 있어 동질적인 민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언어였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장기 역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 언어의 정치가 밀접한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 전개 역시 장기 역사적 시기를 특징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양식을 취한다. 크게 네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군주의 언어로서 프랑스어가 등장하는 16세기부터 혁명 전의 시기이다. 둘째는 프랑스어가 군주의 언어에서 18세기 말 혁명의 언어로 돌변하면서 상징적으로 민족의 언어로 부상하는 시기이다. 셋째는 프랑스어가 실질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언어로 사용되는 19세기 말 제3공화국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는 프랑스가 제국을 상실하고 축소된 이후 제국의 언어였던 프랑스어를 통해 언어의 제국을 추진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이다. 각각의 시기에 프랑스어가 가지는 국내적 국제적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의 언어 정책 내용을 분석하며,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과 사회적 의미를 가늠해 볼 것이다.

II. 군주의 언어

16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300여 년은 프랑스어가 당시 유럽에 존재하였

던 다양한 언어 중 하나에서 유럽 대륙의 최강대국인 프랑스 왕정을 대표하는 언어로 부상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어는 군주의 언어였고, 군주가 지배하는 왕정의 언어였다. 그리고 프랑스 왕정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로서 국가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프랑스어는 행정과 사법을 지배하는 언어로 발전하였다(Balibar, 1985). 또한 프랑스 국가의 융성과 더불어 유럽의 국제 사회, 즉 다른 왕정과 귀족 사회를 지배하는 국제어로서 프랑스어가 라틴어를 대신해 성장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16세기에 프랑스어는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파리가 프랑스 왕국의 수도라는 점에서 군주와 궁정의 일상적 언어였다. 하지만 당시 여전히 공식적이고 권위를 지닌 언어는 로마 제국에서 유래한 라틴어였다.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가톨릭의 언어는 라틴어였고, 각종 학술 활동과 공식 문서는 라틴어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16세기부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식적인 행정 언어로 채택하면서 군주의 언어가 교회의 언어에 도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왕국의 모든 행정 문서를 프랑스어로 작성케 한 1539년의 빌레 고틀레(Villers-Cotterêts) 칙령은 국어로서의 프랑스어의 출범을 알리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Hobsbawm, 1990: 102-3). 모두 1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칙령은 교회가 세례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중앙집권화에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언어 부문에서도 사법과 행정 자료를 작성하는데 기존의 라틴어를 폐기하고 경쟁하는 다른 프랑스의 언어에 대한 프랑스어의 독점적 지위를 규범화하는 조치였다. 왜냐하면 이미 15세기 말부터 프랑스 전역에서는 라틴어 대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언어로 사법 및 행정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칙령 발표 이후에는 이 같은 다양성을 프랑스어 하나로 통일하였기 때문이다.

고전적 프랑스어라고 불리는 언어는 17세기에 만들어 지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띄게 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만을 겪게 된다. 이는 왕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연극과 같은 문화 활동을 통해 다듬어졌고, 1635년 리슈리외 추기경이 설립하여 제도화한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와 같은 기관을 통해 관리되었다(Bergin, 1985). 루이

14세의 왕정에서 활동한 몰리에르, 코르네이유, 라신느 등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가로서 현재까지도 프랑스어의 정수로 군림하면서 교과서에 실려 있고 학생들이 외우는 작품을 생산하였다. 이들의 작품 또한 여전히 공연됨으로서 프랑스어의 살아있는 박물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언어를 관리하는 공정 기관으로 출범하였는데 교회가 라틴어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군주의 언어도 최고의 학자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국어로서 프랑스어의 등장과 발전은 절대 군주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프랑스어는 교회의 보편적 권위에서 점차 독립적인 위상과 권력을 추구하는 프랑스 왕국의 언어로 장려되었고, 고급언어인 라틴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가적 강제력과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급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17, 18세기에는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확산되었다(Chevalier, 1997: 3401). 이는 다름 아닌 프랑스 왕국의 중앙 집권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의 고급화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국내 지방의 '언어 시장'에서 프랑스어가 문화적 자본으로서 혜택을 제공하는 언어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어는 이처럼 군주의 언어에서 권력의 언어로, 그리고 고급 언어로 성장하였다.

동시에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해양 제국이 16세기를 정점으로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고, 네덜란드와 영국이 해외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지만, 프랑스는 대륙 중심의 광활한 영토와 압도적인 인구를 토대로 한 최강대국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프랑스 왕국의 중심적 역할은 이미 고급화한 프랑스어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은 여전히 라틴어로 작성되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나 파티의 언어는 프랑스어로서 국제적이고 외교적 영역에서 이미 그 위상이 확인되었다(Bély, 1992: 339-350). 1714년 라슈타트 Rastatt 조약은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작성된 국제 조약이며 그 후로 프랑스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기까지 유럽의 링구아 프란카(lingua franca), 즉 국제어 또는 보편어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후계자로서 경쟁할 수 있는 언어로는 이탈리아어와 에스파냐어를 들 수 있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중심의 지리적 상속자인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단테의 신곡으로 상징되는 훌륭한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인 프랑스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다른 한편 에스파냐는 프랑스와 경쟁할만한 언어의 고급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⁵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의 명성 높은 지식인들은 프랑스어를 국제어로 등장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21세기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프랑스의 소프트파워(Nye, 2004)가 당시 왕족 및 귀족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기에 돌입하면 프랑스는 라틴어를 대신하여 유럽의 국제 언어 또는 보편언어로 등장하게 된다. 유럽 각국의 왕정은 물론 귀족 사회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프랑스어는 기본으로 포함되는 것은 물론 자국의 언어보다는 프랑스어로 서로 대화하는 현상이 확산된다.

고급언어, 그리고 보편언어로서 프랑스어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프랑스어와 관련된 전통과 신화가 이 시기에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의 천재성(*le génie de la langue française*)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유 특성들이 강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언어이고, 맑은 소리와 투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⁶와 같은 다른 언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전통적 요소들이 만들어 진다(Fumaroli, 1997: 4645).

결국 16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프랑스어는 프랑스를 지배하는 군주의 언어에서 왕국의 언어로 그 사용 범위가 확산되었고, 다시 유럽 주변 국가로

5. 경쟁 언어에 대한 프랑스어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17세기에 쓰여진 라부뢰르(Laboureur)의 저서 ‘라틴어에 대한 프랑스어의 이점’(*Les avantages de la langue française sur la langue latine*)에는 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금지할 때는 에스파냐어로 명령하였고, 악마가 이브를 유혹할 때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였으며, 아담과 이브가 신에게 용서를 빌 때는 프랑스어는 사용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Fumaroli, 1997: 4664).

6. *Tout ce qui n'est pas clair n'est pas français* (Rivarol, 1852: 111; Fumaroli, 1992: 4679에서 재인용).

전파되어 유럽 군주와 귀족들의 언어로 부상하였다. 유럽의 엘리트와 지배계층은 이제 프랑스어라는 보편언어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어는 근대적 의미의 국어(national language)라기보다는 겐너가 지적한 것과 같이 엘리트 사회에 한정된 고등 문화(high culture)의 언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⁷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프랑스인의 대부분은 여전히 프랑스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III. 혁명의 언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기존의 군주제도를 타파하고 민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인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언어의 영역에 있어 혁명 세력은 군주의 언어로서 발전되어온 프랑스어를 혁명의 언어로 선택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였다. 물론 이런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혁명 세력은 군주의 언어를 민족의 언어로 채택하는 이유와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언어적으로 다양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다(심을식, 2002).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북부의 위 언어(langue d'ôïl) 지역과 옥크 언어(langue d'oc)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언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브르타뉴, 바스크, 알자스, 코르시카 등은 각각 여기서 벗어나는 독특한 언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앙시앵 레짐의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통한 고급문화 엘리트의 통합과 대중 언어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 세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콩도르세(Condorcet)와 그레구아르 신부(Abbé Grégoire)는 언어를 통한 민족의 통합을 주장하였다.⁸ 특히 혁명이 반혁명 세력과 외국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게

7. 겐너의 '민족과 민족주의' 제2장 농경사회의 문화를 참고할 것(Gellner, 1983: 8-18).

되면서 이러한 언어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바레르(Barère)는 다음과 같이 언어와 정치, 언어와 영토, 그리고 언어와 의식의 상호관계를 규정하였다.

연방주의와 미신은 브르타뉴어를 한다. 공화국을 증오하는 이민자들은 독일어를 한다. 반혁명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맹신주의는 바스크어를 한다. 이 파괴와 실수의 도구를 부수자 [...] 군주제가 바벨탑과 닮았던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국어를 모르면 권력을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다 [...] 프랑스어는 [...] 모든 프랑스인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공공 사고의 도구이며 혁명의 가장 확실한 장비인 공동의 언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유로운 인민에 있어 언어는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언어이어야 한다(Chevalier, 1997: 3412-3413).

근대 민족의 형성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이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명백하게 제시되었던 것이다. 앙시앵 레짐에서 프랑스어는 군주의 통치 도구였지만 혁명 이후에 프랑스어는 반대로 인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견제하는 도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과거의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왕실과 다른 유럽 국가의 왕실을 연결하고 유럽의 국제적 엘리트 네트워크의 공용어였지만, 혁명의 프랑스어는 구성되어 있지 못한 분열된 인민을 하나의 프랑스 민족으로 구성(constituer, constituer)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de Certeau et al., 1975).

하지만 보편 언어에서 민족의 언어로의 성격의 변화가 순탄하게 이뤄진 것만은 아니다. 최강대국의 언어로 보편 언어의 위상으로 부상하였던 당시 프랑스어는 라틴어를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로 통하였다. 하지만 민족의 언어로서 프랑스어는 프랑스 민족의 정신과 특징을 대변하는 특수한 언어로 다시 규정되어야 했다(Hermet, 1996: 108-9). 따라서 가장 이성적이고

8. 인민의 평등과 해방을 주장하였던 프랑스 혁명이 반드시 언어의 통일로 귀결되어야 하는 필연성은 없었다. 혁명 초기 1790년 부셰트(Bouchette) 의원의 제안으로 의회에서는 법령을 프랑스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출간하도록 하는 결정이 이뤄졌고, 따라서 브르타뉴, 알사즈, 로렌 등지에서는 실제로 법령의 번역 작업이 1792년까지 진행되었다.

합리적인 언어로서의 보편 프랑스어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프랑스 민족의 독특한 언어는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보편성과 독립성의 이런 긴장관계는 보다 커다란 의미에서 프랑스 민족개념과 민족주의가 가지는 모순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프랑스 민족은 혁명에 대한 충성과 인민의 해방을 지향하는 보편적 민족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 전쟁을 치르거나 해외 식민지 팽창을 할 때도 해방과 문명화의 사명(mission libératrice et civilisatrice)과 같은 보편주의적 기반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쟁의 대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방과 문명화라기보다는 군주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억압과 고유 전통의 파괴라는 차원을 동반하게 마련인 것이다.

프랑스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언어적 통일을 통한 민족의 형성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 과정은 기존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파괴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하여 20세기 후반에 지역 언어 활성화 운동이 시작되기까지 프랑스 지방의 언어들 은 프랑스어에 밀려 퇴보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민족 국가의 형성은 ‘언어적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묘사보다는 ‘표준어의 확산과 지방어의 소멸’이라는 이중적 과정과 현실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혁명과 해방의 언어로서 프랑스어의 등장, 그리고 민족 구성의 원칙으로서 프랑스어의 위상은 혁명 이후 19세기 전반에 걸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엘리트 언어에서 국민의 언어로 이행하는 긴 과정에서 이 시기는 대중적 언어, 민족 언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직 프랑스어 교육이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 1794년)가 설립되어 프랑스어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의 제도화가 이뤄졌다. 같은 해 그레구아르 신부는 ‘방언을 소멸시키고 프랑스어를 보편화하기 위한 필요성과 수단에 대한 보고서’⁹에서 2,800만 명의 프랑스 인구 중 ‘순수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3백만에

9. Rapport sur la nécessité et les moyens d'anéantir les patois et d'universaliser l'usage de la langue française.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이어 공포된 법령에서 혁명 정부는 프랑스의 모든 공식 문서는 프랑스어로만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제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을 뒀으로서 강력한 ‘언어 공포’(terreur linguistique) 정치를 시행하였다. 물론 이런 엄격한 법령이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교육과 군대를 통한 간접적 프랑스어의 일반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명의 언어로서 등장한 프랑스어는 국제 관계에서 다른 민족의 개념과 민족주의를 촉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 앙시앵 레짐에서 보편 언어로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지 않았던 프랑스어는 프랑스 민족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 혁명군대의 침략과 점령을 통해 다른 민족 언어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독일어의 민족주의적 부상을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의 헤르더는 독일 민족을 규정하는데 있어 언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축으로 삼았는데,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 프랑스에서 국가를 점령한 혁명 세력이 프랑스어를 통해 다양한 인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하려 했는데, 이 정책이 독일에서는 언어 문화적 동질성 가졌지만 다양한 정치 체제로 분산되어 있는 권력을 하나의 국가로 묶으려는 민족주의 세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국가가 민족을 구성하는데 언어 정책이 사용되었다면, 후자는 민족이 국가를 찾는데 언어가 동력으로 작동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동시에 프랑스에서 혁명 세력의 집권에 위협을 느낀 주변 절대 왕정 국가들의 적대적 반응과 전쟁의 발발은 프랑스 국내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는 겔너가 지적하였듯이 고등문화의 언어에서 대중문화의 언어로 프랑스어가 다시 탄생하는 시기이다. 물론 프랑스어가 이때 대중화 보편화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원칙이 확고하게 수립되었다. 프랑스의 민족 정체성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중심으로 되었고, 비록 이 시기에는 구체제의 프랑스어와 신체제에서 프랑스어의 정치적 차이점이 강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분은 점차 사라졌다. 그리고 오히려 프랑스어의 과거 보편적 성격과 혁명의 특수한 성격이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IV. 제국의 언어

프랑스어가 원칙적인 프랑스 민족의 언어에서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의 언어로 발전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프랑스어로 하여금 이론적 국어에서 실질적 국어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Hermet, 1996: 108-13). 첫 번째는 대중적 정치와 민주주의의 등장이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인민 주권의 원칙이 일부 시기(부르봉 시대인 1815~1830년)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보편적 투표권이 인정되는 민주주의는 1848년에 와서야 실현되었다. 또한 제2공화국이 쿠데타로 붕괴되고 제2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실질적인 민주정치의 실현은 제3공화국이 시작되는 1870년대에서야 가능해졌다. 프랑스의 민주 정치를 상징하는 공화주의는 ‘하나의 불가분의 공화국’(République une et indivisible)이라는 이념을 기둥으로 삼고 있으며, 이 단일성과 불가분성은 다시 언어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교육과 징병제도의 대중화이다. 제3공화국은 1880년대 일명 페리(Ferry) 법안을 통해 초등교육을 보편성, 무상성, 종교중립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함으로써 대중 교육의 시대, 국민 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징병 제도의 대중화를 통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의 병역 의무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복무를 통한 언어의 통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1880년대부터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지방색이 강하고 방언을 사용하는 농민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Weber, 1976). 이 시기에 프랑스 각지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지역에서 앙시앵 레짐의 대표로 상징되는 신부에 대립각을 이루는 근대 공화정의 대표로 인식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프랑스 정치 지형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상호 관계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공화정을 주장하는 좌파 세력의 이념이었다. 군주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외국의 군주들과 연합하여 내정

의 변화를 꾀하였다면, 프랑스 민족의 공화정을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전파하려는 것은 좌파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프러시아와의 전쟁(1870~71년)에서 패배한 뒤 수립된 제3공화국에서는 민족주의 이념이 좌파에서 우파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1880년대의 불량제 장군을 중심으로 우파 세력이 결집하면서 독일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우파로 넘어 오게 되었다. 다른 한편 좌파는 위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문명화와 해방의 임무'라는 구호를 앞세워 식민제국의 건설에 집중하게 된다 (Brubaker, 1992: 11). 결국 어느 정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고려했던 우파 세력도 민족주의화하면서 중앙 집중적 성격을 띄게 되었고, 좌파 세력은 가능한 한 가장 커다란 규모의 프랑스 제국을 만들어 프랑스어와 문명을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도달하였다. 이에 국어 또는 제국의 언어로서 프랑스어의 성격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정치의 민주화, 교육의 대중화, 이데올로기의 민족주의화는 모두 프랑스어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보편성을 확대하는 변화로 작동하였다. 우선 내부적으로 프랑스어의 교육은 초등교육을 통해 전 국민에 확산되면서 기존의 방언을 말살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¹⁰ 페리 법안 이전인 1863년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인구 3,800만 중에서 7백만 명 이상이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나머지도 학교에서 배웠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곧바로 방언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이르면 보편 교육을 통해 프랑스어가 대부분 프랑스인의 일상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현상을 내부적 식민주의라고 분석할 정도로 기존의 지역 문화는 침식되었고, 프랑스어는 직업과 출세, 생활과 사고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브르타뉴 지역에서는 학교 교실과 휴식 시간에 브르타뉴어는 사용 금지되었고 이렇듯 여기는 학생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드몽지(de Monzie) 교육부 장관은 1925년 프랑스의 언어 통일을 위해 브르타뉴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동시에 20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브르타뉴 지역의 공공 기관에는

10. 1790년대 프랑스 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초등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Instituteur*라는 단어는 민족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는 자(*celui qui institue la Nation*)라는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다(Hermet, 1996: 111).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거 지방에 파견되는 것은 제3공화국에 와서이다.

“바닥에 침 뱉기와 브르타뉴어 사용 금지”라는 표시가 일상적이었다.

외부적으로는 우선 제국 내에서 프랑스어의 교육이 강요되었다. 영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제국주의의 양상을 띠었다면 프랑스는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프랑스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노골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우리 조상 갈리아인들’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초현실적 상황이 연출되었고 과거 프랑스 영토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국의 영토에서도 프랑스어의 사용이 강제되었다(Gross, 2005). 이는 언어적 다양성을 본토와 제국에서 모두 인정하였던 영국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프랑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프랑스에서 민족 정체성과 언어의 상호 관계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언어 민족주의는 자국 영토와 제국의 영토에 제한되지 않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해외에서 프랑스어를 교육하기 위한 1883년 알리앙스 프랑세즈 창립이다. 이 기관은 캉봉(Cambon)이 주도하였는데 그는 프랑스 보편 초등교육정책을 수립한 페리의 비서실장이었다. 이 기관의 설립에 동참한 인물로는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르낭(Renan), 파스퇴르(Pasteur), 쥘 베른(Jules Verne) 등이 있다. 또한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탱 Coubertin 백작은 올림픽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제도화하였고, 기타 외교 분야에서도 여전히 프랑스어의 위상은 드높았다.

‘프랑스어의 역사’라는 기념비적 연구를 진행한 브뤼노(Brunot)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1860년생인 브뤼노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설립한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공화국 교육의 산물로서 1891년 소르본대학에 교수로 임명된다. 1900년에는 프랑스 언어의 역사를 담당하는 석좌교수로 임명되는데, 참고로 이런 명칭의 석좌교수는 프랑스와 해외를 막론하고 사상 최초였다. 브뤼노는 1905년 ‘프랑스어의 역사’에서 중세를 다루는 제1권을 출판하였고 1938년 사망할 때까지 모두 11권을 작성함으로써 언어와 국가의 역사적 상호 관계를 세밀하게 추적하였다.

당시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경쟁 대상은 과거의 이탈리아어나 에스파

나어가 아니라 프랑스에게 패배를 안겨준 독일어였다. 브뤼노는 ‘야만적 상태’에 가까운 독일인들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프랑스어였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어로 고급 대화의 예술이 가능하겠느냐고 되묻는다. 그는 또 독일어가 민족 언어로 부상하기 전까지 독일의 수도는 파리였다고 지적하면서 ‘이성과 사회성의 언어’인 프랑스어와 ‘안개와 예고의 언어’인 독일어를 대비시켰다(Chevalier, 1997: 3390-1).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은 프랑스에 고유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정체성의 현상이 그러하듯이 이 같은 인식은 독일 측에도 자신의 문화와 프랑스의 문명을 대비시키는 비슷한 방식으로 존재하였다(Elias, 2000).

이처럼 1870년대부터 1940년까지 지속된 제3공화국의 시기에 프랑스어는 명실상부한 프랑스 본토의 전 국민이 구사하는 언어로 확립되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유럽에 제한된 보편언어가 아니라 진정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제국의 보편언어로 등장하여 다양한 배경의 문화와 언어의 종족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는 다른 제국과 언어권에서도 고급문화의 언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줌으로서 프랑스 민족 정체성의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V. 언어의 제국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은 프랑스 제국의 점진적 붕괴와 미국 소련이 지배하는 양극체제에서 프랑스 국력의 쇠퇴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역사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보편 언어로서 프랑스어의 하락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프랑스와 함께 영어가 병행되어 사용된 데서 그 상징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또 프랑스어의 추락이 가속화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제국이 붕괴되면서이다.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어는 영어에 계속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내주게 되었고, 제국은 붕괴되어 일부 국가는 프랑스어의 교육이나 사용을 거부 또는 포기하였으며, 프랑

스 내부적으로도 영어나 다른 외국어의 범람이 프랑스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프랑스어에 대한 장기적 도전들을 차례로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프랑스어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하락이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프랑스어는 17세기 루이 14세부터 유럽에서 라틴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고급 보편 언어로 등장하였고 그 이후 다양한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일의 위상을 지켜왔다. 혁명의 언어의 시기에도 프랑스어는 근대성을 상징하는 언어이자 해방의 정치를 묘사하는 언어로 19세기 유럽 부르주아 민족 혁명을 주도하는 보편 언어였다. 19세기 후반 일명 팍스 브리타니카의 영국 중심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프랑스어는 전통적인 외교언어로 군림하였으며, 영어는 단지 상업적 언어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양차 대전 전간기(戰間期)에 프랑스어는 영어에 최고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국력 강화라기보다는 유럽에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세계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팍스 브리타니카에 이어 등장한 팍스 아메리카나는 영어의 세계를 만들었고 프랑스어는 제도적 관성에 의해서 간신히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물이 되었다.

다음은 프랑스 제국의 붕괴로 인한 프랑스어의 쇠퇴이다. 프랑스 제국이 최대의 영향력을 확보한 정점은 역설적으로 프랑스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양차 대전 전간기이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지구의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제국의 영토에서는 프랑스어가 제국언어로서 교육되고 사용되었다. 하지만 인도차이나 전쟁과 알제리 독립전쟁을 통해 프랑스 제국은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를 전후해 거의 붕괴하였다(Bernstein, 1989: 224-31). 탈식민화를 통해 탄생한 일부 신생 국가들은 프랑스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프랑스어의 교육과 사용이 퇴보하거나(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인도차이나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우).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세 가지 변화가 언어 영역에서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국제무대에서 진행되는 영어의 확산이 국내적으로도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오염시킨다는 인식이다. 프랑

글래(Français)라고 불리는 프랑스어(Français)와 영어(Anglais)의 합성어가 유행함으로써 전통적 프랑스어의 질서와 정신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생각이 프랑스인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 정체성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 국력과 위상의 축소는 국내에서 영어의 범람과 연결되면서 대응을 촉발하게 된 셈이다. 같은 차원에서 프랑스는 외국, 특히 미국 자본의 프랑스 진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1960년대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¹¹ 영어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화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 인구의 증가이다(Noiriel, 1988).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19세기부터 이미 이민을 받아 프랑스 문화와 언어로 동화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이민은 기존의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의 인구 이동에서 지리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종교나 종족적 배경을 가진 인구의 이동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과거 프랑스 제국의 인구가 프랑스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프랑스의 민족 정체성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 성공했던 동화정책이 1980년대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실패하게 되고, 교외 지역의 소요 현상이 등장하면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정체성의 강화라는 쟁점이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 문제를 민족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극우 세력이 상당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내부적인 마지막 변화는 프랑스의 중앙 집권적 전통과 그 핵심을 형성하는 프랑스어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지방의 언어들에 저항적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등장한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운동은 프랑스어의 강요가 지방의 문화적 자산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부활하기 위한 변화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ibille, 2000). 다른 한편 유럽 통합의 발전은 초국가적 단위의 형성과 함께

11.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 세르방 슈라이버는 이미 1960년대 ‘미국의 도전’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자본의 프랑스 경제 침투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Serban-Schreiber, 1967).

민족 국가적 단위의 독점성을 허물면서 지방의 부활에 기여하였다(Lodge, 1995: 239-50). 1993년에는 유럽연합에 지역위원회(Committee of Regions)가 구성되어 지역을 정치적 단위로 인정하고 그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지방적 단위에서 나타나는 민족 국가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유럽이라는 지역의 통합 운동과 맞물리면서 국어 또는 민족어(national language)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민족 정체성의 위기의식은 제2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언어 정책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가장 적극적인 정책의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이 프랑스어권이라는 개념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의 제국’을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정치적 권력을 통해 문화적 언어를 강요했다면, 새로운 시도는 문화적 권력을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프랑스어를 사용하거나 프랑스와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는 55개의 회원국과 13개의 옵서버가 참여하는 프랑스어권 국가연합은 1970년에 처음 출범하여 1986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한양환, 김승민, 2003), 2005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진흥 협약’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달리 말해서 국제무대에서 영어와 미국 문화의 독점적 지위에 대항하는 주요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정책은 프랑스 내부에서 외국어의 사용과 혼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언어 정책이다. 프랑스어 사용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75년인데 당시는 ‘영광의 30년’의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제 위기가 시작된 상황이었으며, 대규모의 이민 정책도 중단한 상황이었다.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경제 위기와 이민 중단, 그리고 언어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언어 정책이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그 시대적 필요를 반영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 집단의 문제가 르펜¹²이 주도

12. 르펜(Le Pen)은 1980년대 급부상한 극우파 정치인으로 민족전선(Front National)이라는 명칭의 정당을 창당하여 주도하고 있으며, 이민자와 외국인을 프랑스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배타적 국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에 진출하여 시라크와 대결을 벌여 패한 바 있다.

하는 극우 정치 세력에 의해 정치적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1990년대에는 유럽단일시장이 완성되었고, 유럽연합이 출범하였다.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프랑스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 정부는 좌우의 성향을 떠나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언어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송기형, 2000; 심을식, 2002). 1989년에 프랑스 언어 총괄국(DGLF)과 프랑스 언어 고등 위원회(CSLF)가 출범하였고, 1992년에는 공화국 헌법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4년에는 일명 투봉(Toubon) 법안을 통해 프랑스 언어의 사용을 규정하는 강력한 조치가 다시 취해졌다. 1975년의 프랑스어 사용법을 대체하면서 그 범위와 규제를 강화하는 투봉 법안은 모든 상품과 용역의 소개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육과 방송에서 프랑스어의 독점적 지위를 확인하며, 공공기관의 대표가 공적으로 발언할 때 외국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세계화와 유럽화의 도전, 그리고 내부에서 제기되는 민족 분열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으로서 민족 정체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정책을 강화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설이다. 언어 정책은 방어적 차원과 함께 해외에서 자국 언어를 확산시키는 적극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VI. 결론: 비교적 전망

우리는 이 연구의 도입 부분에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가장 정치적인 민족 구성을 주장하는 프랑스가 왜 가장 강력한 단일 언어 정책과 동화 정책을 펴는가 패러독스의 핵심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느 한 시기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각 시기와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차별적

으로 조명해야지만 민족의 역사적 형성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와 언어 정책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척 장기적인 역사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장기적인 시각만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강한 언어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그리고 다루는 시기의 장기적 성격이 갖는 무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국가의 형성’과 ‘언어의 정치’라는 문제의식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변화와 상호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프랑스어는 다른 유럽의 주요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에 점진적으로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형성된 언어이다. 프랑스어는 지역적으로 프랑스 북부 파리 근교의 언어이기에 프랑스 왕국이 지배하는 영토의 무척 제한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였는데, 군주의 언어라는 이유로 16세기부터 공식적인 성격을 강화하면서 왕국 엘리트의 언어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7, 18세기에는 프랑스의 국력의 강화와 내부적인 중앙 집권적 성향, 그리고 프랑스 계몽주의의 사상적 영향력에 의해 프랑스어는 유럽 귀족과 엘리트의 보편 언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미 프랑스어의 귀족적 성격과 천재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보편 언어의 정당성을 담보하게 된다.

프랑스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혁명과 해방의 언어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귀족적 보편 언어로서의 성격은 정치적 해방을 위한 민족의 언어라는 의미로 대체된다. 민족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의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민족-국가-언어를 연결하는 근대적 삼각관계가 최초로 부각되는 것이다. 혁명기 프랑스에서 앙시앵 레짐의 중앙 집권적 국가를 점령한 세력은 프랑스어라는 통합 수단을 통해 그야말로 민족을 ‘구성’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혁명이 민족-국가-언어의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삼각관계를 수립하였다면 프랑스 제3공화국은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시기였다. 프랑스의 다문화 다언어적 현실을 보편적 초등교육과 징병제를 통해 공통의 단일 언어를 사용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 본토에서 외부로 확장된 제국에서, 그리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대에서도 프랑스어를 진흥함으로서 앙시앵 레짐의 보편적 성격과 혁명기의 민족적 성격을 함께 아우르는 양상을 띠게 된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언어 정책에 있어 확산적이고 적극적인 단계에서 국력의 쇠퇴에 따른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특히 제국의 붕괴에 따른 정치력의 상실을 문화적 연결을 통해 보상하려는 프랑스어권 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화 및 영어가 강세를 보이는 유럽화로부터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과잉 반응의 정책을 나타낸다. 이에 덧붙여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이민 인구의 증가와 지방언어의 부활 운동과 같은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더욱 국수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프랑스가 보여주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언어 정책은 장기적인 프랑스 민족 정체성과 언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프랑스어는 단순한 프랑스인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 라틴어를 대체한 유럽의 보편 언어였고, 혁명의 인민 주권을 실현하는 도구였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언어였다. 그래서 프랑스의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관계

	프랑스어의 국내 위상	프랑스어의 국제 위상	국가의 언어 정책
군주의 언어	-원래 파리근교 방언 -16세기부터 왕국 엘리트의 언어	-유럽 엘리트의 언어 -국제관계의 언어: 라틴어 대체	-언어 관리 기관 설립 -왕궁에서 프랑스어의 천재성 담론 형성
혁명의 언어	-민족국가-언어 관계 형성 -정치적 해방의 언어	-유럽 혁명엘리트의 언어 -국제관계의 언어	-기타 방언 부정 -언어의 대중화
제국의 언어	-언어=시민의 조건 -실질적 일상어로 전국에 보편화	-식민제국에 프랑스어 강요 -국제적 대중화 시도 -영어의 도전	-보편 교육을 통한 프랑스어 강요 -방언 말살 정책
언어의 제국	-지역 방언과 이민자 언어의 도전 -외래어로 인한 '오염'	-국제보편어로서 위상 실추 -구 식민제국에서도 위상 약화	-프랑스어권을 통한 언어 다양성 정책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

언어 정책은 언어에 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프랑스 민족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적 성격을 포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 다른 몇 가지 방향으로 더욱 깊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중 하나는 프랑스의 민족 정체성을 담보하는 다른 상징과 담론, 그리고 정책들을 연구함으로써 언어 정책과의 공통점과 특징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정치 문화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프랑스 특유의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 담론은 프랑스의 정치적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는 프랑스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 문화와 그에 대한 자부심 역시 정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문화적 민족 정체성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민족국가의 형성과 언어의 정치를 연구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유럽의 이웃 국가들, 예를 들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에서 민족-국가-언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프랑스와 비교하는 연구는 매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미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구성이 문제시 되었던 독일어권의 연구는 이 사례와 흥미로운 대조의 사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어권이 활발한 대외정책의 방향으로 등장한데 반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독일어권 형성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조적이다.

또 다른 방향은 세계화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국제 공용어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고대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제국의 언어였고, 고대 한어(漢語), 당어(唐語)는 해당 왕조의 언어이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였다. 또한 제국을 보유했던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모두 언어의 조국과 식민국이 공존하였다. 따라서 모두 어느 정도 특수성과 보편성의 긴장 관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문화적 자본이 개입하는 언어의 정치를 통한 상징적 폭력의 정치가 행해졌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언어와 같은 문화적 요소의 분석은 가장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권력의 기제를 이해하는데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학의 보다 커

다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 국가라는 정치적 모델이 지배하는 현대 정치에서 국가의 다양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구성적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의 정치를 통한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진수. 2007. 『프랑스의 언어정책』.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송기형. 2000. 「프랑스의 언어정책」. 『역사비평』 가을호. pp. 145-157.
- 심을식. 2002. 「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8집. pp. 73-92.
- 원윤수 외. 2000. 『언어와 근대정신: 16, 17세기 프랑스의 경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홍식. 2005. 「민족의 개념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pp. 129-145.
- 한양환·김승민. 2003. 「프랑스어권 국가연합(La Francophonie)의 현황과 발전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2집. pp. 519-540.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alibar, René. 1985. *Institution du français: essai sur le co-linguisme des Carolingiens à la République*. Paris: PUF.
- Basdevant, Suzanne. 1933. "Le principe des nationalités dans la doctrine." Benjamin Akzin. *La nationalité dans la science sociale et dans le droit contemporain*. Paris: Sirey.
- Bély, Lucien. 1992.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n Europe, XVIIe-XVIIIe siècle*. Paris: PUF
- Bergin, Joseph. 1985. *Cardinal Richelieu: Power and the Pursuit of Weal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ernstein, Serge. 1989. *La France de l'expansion. I. La République gaullienne 1958-1969*. Paris: Seuil
- Bourdieu, Pierre. 2002. *Questions de sociologie*.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vet, Louis-Jean. 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Payot
- Chevalier, Jean-Claude. 1997. "L'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de Ferdinand Brunot." Pierre Nora, ed. *Les lieux de mémoire*. Paris: Gallimard Quarto. pp.

3385-3419.

- de Certeau, Michel, D. Julia, J. Revel. 1975. *Une politique de la langu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s patois: L'enquête de Grégoire*. Paris: Gallimard
- Elias, Norbert. 2000. *The Civilizing Process: Sociogenetic and Psychogenetic Investigations*. Oxford: Blackwell
- Fumaroli, Marc. 1997. "Le génie de la langue française" in Pierre Nora, ed. *Les lieux de mémoire*. Paris: Gallimard Quarto. pp.4623-4685.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ross, Janice. 2005. "Revisiting 'nos ancêtres les Gaulois': Scripting and postscripting francophone identity." *The French Review* 78(5). pp. 948-59.
- Hermet, Guy. 1996. *Histoire des nations et du nationalisme en Europe*. Paris: Seuil.
- Hobsbawm, Eric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J. and Terence Ranger.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dge, Juliet. 1985. "Democracy in the EU: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upranational,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of Government" Mario Telo. ed. *Démocratie et construction européenne*. Bruxelles: E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pp. 239-50.
- Noiriel, Gérard. 1988. *Le creuset français*. Histoire de l'immigration XIXe-XXe siècle. Paris: Seuil.
- Nye, Joseph.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Rivarol. 1852. *De l'universalité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Didier.
- Serban-Schreiber, Jean-Jacques. 1967. *Le défi américain*. Paris: Denoël.
- Sibille, Jean. 2000. *Les langues régionales*. Paris: Flammarion.
- Weber, Eugen. 1976. *The Peasants into Frenchmen: The Modernization of Rural France, 1870-191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Nation-State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France and French in Historical Perspective

Cho Hong Sik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oongsil University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of nation-state-language, France is characterized by a kind of paradox. Unlike the German understanding of nation defined in ethnocultural terms of blood, tradition, customs, and language, the French definition of nation is far more subjective and political. Nevertheless, France has been practicing one of the strongest national language polic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formation of a nation-state along with the accompanying politics of language by combining the triple problems of 'the invention of tradition,' 'the formation of modern citizenship,' and 'linguistic domination.' The main argument is that, because France had to confront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diversity, the language policy emerged as a central instrument to produce a centralized nation for the early-established. The dense connections between the formation of French nation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he language can only be observed from a long-term historical perspective. This explains the French attempts to compensate the loss of political power by cultural ties in her policy of Francophonie in the second-half of the 20th century. More recently, the French language policy has reflected an excessive zeal to protect the 'purity' of the language in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American-led globalization and of the English-dominated Europeanization. The sociocultural problems of immigration and the revival movement of regional languages have also provoked a chauvinistic tendency.

Key Words: Nation, Nation-State, National Identity, Language, France, French